

씩지 않는 한 줄기 황금선

가난과 좌절의 연대에 나를 일깨워준 책들

金容誠

소설가 · 인하대 국문과 교수



金容誠 교수

1

「보바리 부인」을 읽은 학생? 「적과 흑」을 읽은 학생? 나는 학교에서 신입생과 첫대면을 하면 먼저 이렇게 묻고는 한다. 문단 한 구석에 소설을 쓴답시며 발을 들여놓고 있는 탓이다. 50명 중에 손을 드는 학생은 한 두명, 때로는 1백명 중에 한 두명에 불과하다. 「전쟁과 평화」는? 한명이 나올까 말까다. 그럼, 이광수의 「무정」을 읽은 학생? 여학생 가운데서 두 세명이 손을 든다. 그러나 염상섭의 「삼대」를 읽은 학생은 거의 없다. 아주 방향을 바꿔 모 인기작가의 모모하는 시리즈물을 읽었느냐고 물으면 어김없이 여나쁜 명이 의기양양 손을 든다. 이러한 결과는 문과 · 이공과를 나눌것 없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은 중 · 고등학교 교육제도의 폐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웬지 일말의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고, 어쩌다 짧은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인생을 생각해 하기보다는 망각케 하는 방향의 독서 행위를 선택해 왔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인생을 망각케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긴장된 머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는 세상만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쟁사회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을 생각하기보다는 망각하는 것도 정신 건강상 이로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볼 때,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무슨 책을 읽든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망각하기’는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수동적으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고전을 읽어라, 훌륭한 소설을 읽어라 하면서 상식적이고도 공허한 외침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쉽게 주제가 드러나는 소설보다는,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케 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소설을 읽기 바란다.

나는 고전이나 훌륭한 소설들을 시대별로 한 줄에 나열해 놓고 보면 거기에는 썩지 않는 한 줄기 황금선이 꿰뚫고 있음을 본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 황금선은 인간의 편에 서 있는 정신, 휴머니즘인 것이다.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또는 독파를 하고나서, 내가 읽고 있거나 방금 읽은 소설이 바로 그 황금선의 한 점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했을 때 나는 무한한 희열에 젖는다.

버스나 전철간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고,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거나 앞에 앉은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살피는 것도 좋고, 그저 눈을 지긋이 감고 있는 것도 좋으나, 황금선을 찾는 유익과 희열을 위하여 책 속에 시선을 꽂는 것은 더 한층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의 나는 어떤가. 것처럼 책읽기를 권장하고 열망했던 나는? 한 시간의 아침저녁 통근버스 안에서 편안히 몸을 맡기고 피로회복이라는 핑계를 대고 잠을 자기 일쑤다. 또 일반버스나 전철간에서도 지긋이 눈을 감고 있는 버릇이 생겼다. 책읽기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편안히 있는 것, 눈도 굴리지 않고 머리도 썩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실 나는 한때 일반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우중충한 잿빛 도시의 풍경이 싫어서, 전철의 앞사람을 의심스럽게 살피는 것이 싫어서, 무료하게 눈감고 시간을 죽이는 것이 싫어서 잠바로 양복이고 가릴 것 없이 주머니에 문고판 책 한 권을 꼭 넣고 다녔었다. 그러던 버릇이 사라진 것은 요 얼마전부터이다. 아마도 육체적 편안함을 희구하는 경향이 그와같은 바람직한 버릇을 사라지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성취도에 불만을 품은 내부의 반발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사내가 버스나 전철간 손잡이에 매달려 한 손에 받쳐들고 읽는 저 책이

고전이나 훌륭한 소설이라고 평가된

작품들을 시대별로 한 줄에

나열해놓고 보면,

거기에는 썩지 않는

한 줄기 황금선이 꿰뚫고 있음을 본다.

내가 읽은 소설이 바로

그 황금선의 한 점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했을 때, 나는 무한한

희열에 젖는다.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스스로의 모습을 그려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 책으로 밥을 먹고 살면서도 책이 밥먹여 주느냐는 역설이 치받쳐 오른다. 그래서 나는 내 주머니에서 책을 추방했던 모양이다. 그리고보니 우중충하게 보이기만 하던 도시의 풍경도 화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도, 질주하는 자동차들도,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들도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듯이 여겨진다. 드디어 눈을 지긋이 감고 거리에서 배운 것을 음미하고 선망하고 꿈꾼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타락화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음미하고 선망하고 꿈을 꾸어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나는 허망을 달래기 위해서 무심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본다. 책을 넣어 갖고 나올 걸 하는 후회가 큰 죄를 지은 듯이 가슴을 저미는 것이다.

2

내가 소설다운 소설을 대한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외사촌에게 빌어 본 「異次顛의 死」였다. 결끄럽고 구멍이 숭숭 뚫린 흙색 저질 종이에 인쇄된 책이었다. 글자가 박혀 있을 곳에 구멍이 나서 나름대로 추리하여 자구를 연결시켜 읽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을 읽은 뒤, 나도 그럴 듯한 거짓말을 꾸며 낼 수는 없을가를 생각했다. 이차돈의 목을 쳤을 때 흰 피가 뿜어 나왔고 목이 날아갔다는 대목에서 나는 거짓말 속의 진실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그와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어린 마음에도 정신적인 그 무엇인가가 응집되면 그런 기적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케 하는 소설가의 힘이 신기하고 매혹적이었다. 소설을 읽는 재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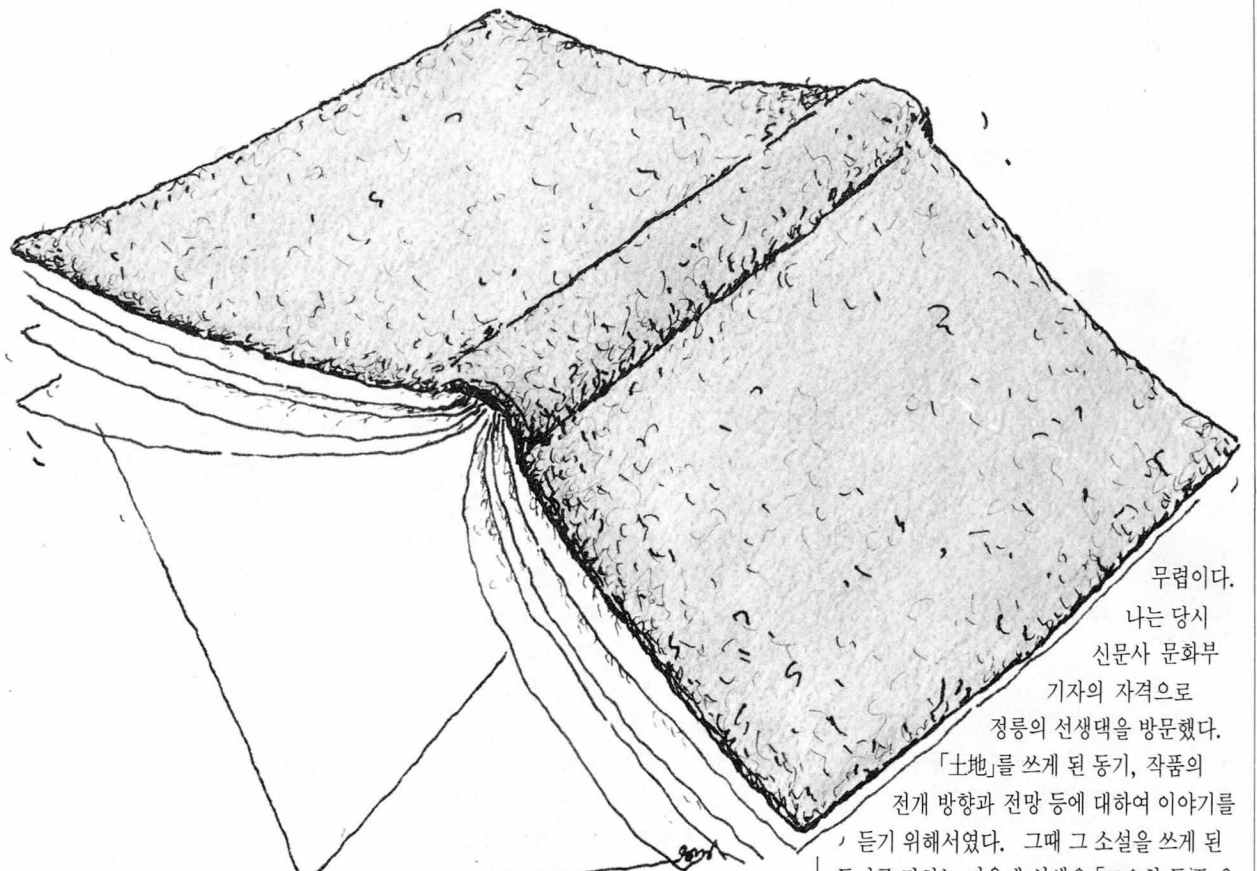
고등학교에 다니던 1950년대 후반의 이야기다. 서대문 영천시장 끄트머리에는 개천을 끼고 책 대본집이 한 곳 있었다. 나는 학교가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의 매일 그 대본집에 들러 두어 시간씩 책을 읽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한달에 한번 國費를 내주었는데, 학비를 공제하고도 영화 두어편 관람할 수 있는 돈이 남게 지급되었다. 나는 그 돈으로 대본집에서 책을 빌어 보았다.

책 속에는 세상에서 가치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는 듯이 보였다. 세계 창조의 신비와 인간의 의미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었고, 역사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투쟁이며 이기는 자가 언제나 선한 자로 남는다는 나름대로 소박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다. 나는 책읽기를 통하여 인간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을 터득하기도 했다. 책은 용기를 북돋고 의지를

키워 주었다. 가난에 허덕거리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던 그 좌절의 연대에서 내게 차츰 세상이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본집 주인 아주머니는 뚱뚱한 몸피의 40대 여인으로 나의 책읽기를 매우 신중하게 여겨서, 만화나 잡지류를 보는 아이들과 구별하여 점포 뒤 안채 마당에 따로 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능력껏 스스로 선택해서 책을 읽었다. 거기서 나는 「전쟁과 평화」 「바람과 함께



무렵이다.
나는 당시
신문사 문화부
기자의 자격으로
정릉의 선생댁을 방문했다.
「土地」를 쓰게 된 동기, 작품의

전개 방향과 전망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하는 가운데 선생은 「고요한 돈강」을 언급했다. 그 작품에서 받은 젊은 날의 깊은 감명이 여전히 생생히 살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다.

나는 그때부터 그 소설을 구하기 위해 책방을 돌아다녔다. 번역될 수가 없었던 금서였으니까 책방에서 구해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친지, 여행을 나가는 친구들에게 부탁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 책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5년이 흐른 뒤에 친구를 통해 일어판을 구했다. 나는 영어판을 짧은 실력이지만 그럭저럭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어판은 전혀 자신이 없었다. 사전을 뒤지며 꿰어 맞춰 나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결국 책에 실린 유화 컷과 해설문을 읽는 정도에서 책장을 덮고 서가에 모셔 놓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제작년 여름, 의식서적 출판이 다소 완화되던 틈을 타서 「고요한 돈강」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것이다. 그것도 두 군데서나. 나는 그 해 여름 7권으로 번역된 그 소설을 더위도 모르고 단숨에 읽어 나갔다. 러시아 혁명의 와중에서 코자크족의 생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은 우리의 근대사와 흡사한 바가 있어 박 선생이 내게 권한 의도를 감사히 생각하게 되었다. 실로 15년만의 독파였다.

사라지다」 등의 大작들을 접했는데, 그것들은 각각 6권으로 번역되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펼쳐지는 인간유전의 삶, 남녀의 사랑, 불타는 도시의 파노라마와 같은 것들이 나를 흥분시켰다. 또한 헤세의 도체소설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 투르게네프의 소설에 밴 농노에 대한 애정,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 나타난 신인간 사상, 앙드레 지드의 소설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영과 육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내 가슴에 고여서 나를 생각케 하고 꿈꾸게 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金聲翰의 우화, 孫昌涉의 인간비하에서 세상의 악을 발견하기도 했다.

내가 스무살에 「잃은 자와 찾은 자」라는 길다란 거짓말을 써서 한국일보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대본집에서의 선택적 책읽기 덕분이었다.

책읽기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남의 권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내게는 남의 권장에 따라 읽기로 마음 세운 지 15년이나 걸린 끝에서야 겨우 열망을 풀었던 소설이 있다. 그것은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이다.

1970년의 봄으로 기억된다. 朴景利 선생이 「土地」를 잡지에 몇회 연재하기 시작했을



일러스트레이션—이혜리